

증권 다이제스트



한국투자증권

멀티 배리어 리자드형 300억 한도 ELS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9일까지 코스피200(KOSPI200), 홍콩H(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멀티 배리어 리자드형 'TRUE ELS 10696회'를 총 300억 한도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6개월, 12개월, 18개월), 85%(24개월, 30개월), 80%(36개월) 이상이면 연 5.1%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또한 리자드 옵션에 따라 모든 기초자산이 설정 이후 6개월간 최초기준가 85% 미만, 또는 설정 이후 12개월간 8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면 연 5.1%의 수익을 지급하고 자동 조기상환 된다. /김문호 기자

대신증권

ETN 홈페이지 개설 이벤트

대신증권은 7일 대신ETN 홈페이지 방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커피프티폰을 주는 '대신ETN 홈페이지 놀러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대신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대신증권 홈페이지나 크레온 홈페이지, HTS, MTS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하고 '대신ETN바로가기'를 통해 대신ETN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참가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중 대신증권 홈페이지, HTS, MTS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품 발송은 대신증권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발송 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SK해운 채권 판매

키움증권은 SK해운 채권을 세전 연 4.45%에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SK해운 채권은 신용등급 A- 안정적(한국신용평가), 만기는 2020년 2월 3일(1.5년), 연 수익률은 세전 4.45% 수준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장기운송계약 기반의 우수한 사업안정성, 사업구조조정으로 영업현금흐름 개선과 실적가변성 완화, SK그룹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SK해운을 평가하였다. 해당 채권의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이며,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이표채 방식이다. /손영지 기자

中 A주, 이달말 MSCI 2차 편입

韓증시서 2100억 매도 예상 '찾잔 속 태풍'

(대형주 중심)

8월 말 중국 A주의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편입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찾잔속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5월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는 중국 A주 234개 종목을 2단계에 걸쳐 MSCI 신흥국시장(EM)지수에 편입하기로 한 바 있다. MSCI EM지수는 세계 최대 지수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운용하는 지수로 한국과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상장 기업 위주로 구성된다. 신흥국에 투자하려는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수다.

중국 A주의 MSCI EM 지수 편입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추가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7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5월과 비슷하게 지수에 포함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중심으로 2100억원 정도 주식 매도가 예상된다.

이머징내에서 한국 -0.07% 비중 감소와 페시브 성격의 이머징 추적자금 2650억 달러를 가정한 것이다.

MSCI EM 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이 0.2~0.3%포인트 정도 줄어드는데 무슨 문제일까(?) 하지만, MSCI EM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상당한 거액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5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도 예상 A주 편입 이벤트 영향 크지 않아

기준 MSCI EM 지수를 참고하는 글로벌 자금 규모는 1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단순 계산하면 지난 5월에 이어 8월 말 두차례에 걸쳐 편입될 중국 A주 비중이 0.73%이므로 중국 증시엔 글로벌 펀드 자금 116억8000만달러가 유입되고, 한국 증시엔 글로벌 자금 0.2~0.3%인 32억~48억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A주 편입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았다.

지난 5월 31일 MSCI EM지수에 편입된 국내 종목 거래는 평소 1.8배 급증했다.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은 3조 1000억원에 달했다. 주가는 전날인 30일에 평균 1.7% 급락한 후 편입 당일에는 0.3% 상승했다. 6월 1일에도 평균 0.7% 올랐다. 경험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이벤트가 있었던 2015년 11월과 2016년 5월, 그리고 올해 5월에 코스피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2015년 11월과 2016년 5월은 알리바바 등 중국 ADR의 EM 지수 편입이 있었던 때(11월말, 5월말에 편입). 당시 중국 ADR의 EM 지수 편입비중은 A주의 부분편입 비중보다 더 컸다. 또 이들의 지수 편입으로 2015년 11월과 2016년 5월말에

〈예상 매도금액 상위 30〉

구분	예상 매도 금액 (억원)	5/31일 추가수익률
삼성전자	470	2.4%
SK하이닉스	124	-1.7%
POSCO	65	-0.7%
셀트리온	59	-1.5%
KB금융	54	-1.1%
NAVER	53	2.6%
현대차	50	1.1%
신한지주	47	-2.2%
LG화학	45	2.4%
현대모비스	40	-1.1%
하나금융지주	34	-0.6%
삼성SDI	33	-2.7%
SK이노베이션	33	3.5%
KT&G	32	-0.7%
LG생활건강	31	0.4%
삼성물산	25	0.4%
삼성전기	24	5.1%
아모레퍼시픽	23	0.8%
삼성화재	22	-0.4%
기아차	22	-1.7%
SK	22	-0.7%
한국전력	22	-1.8%
우리은행	22	0.7%
LG전자	22	-3.6%
삼성SDS	20	-1.4%
LG	19	-0.7%
삼성생명	18	-4.2%
엔씨소프트	18	0.6%
삼성바이오	17	2.2%
롯데케미칼	16	1.5%

8월 3일 마감 기준. /자료=Wisefn·신한금융투자

각각 8000억원 내외의 한국물 매도가 예상됐다.

결과는 2015년 11월과 2016년 5월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하지만, 모양새는 달랐다. 2015년 11월에 코스피 지수는 월간 기준 1.9% 하락해 낙폭이 컸고 외국인도 1조9000억원 주식을 순매도 한 반면, 2016년 5월은 지수가 하락했지만 낙폭은 제한적이었다.(0.5% 하락) 외국인도 소폭 순매수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이유가 있다. 2015년 11월은 중국 증시 폭락과 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이머징 지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던 시기다. 2016년 5월은 신흥국 증시가 연 초 바닥을 치고 오름세로 반전한 이후다. 2016년 3월부터는 신흥국 주식에서 자금 유입됐다.

신한금융투자 강승철 연구원은 "현재까지 상황은 2016년 5월보다는 2015년 말과 더 비슷하다. EM 증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5월부터 두 달 연속으로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다. A주 편입 이벤트 자체의 수급 영향은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어려운 시장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식 매수를 주저케 하는 또 한 가지 핑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 안반기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은 MSCI보다 ▲미금리 상승 ▲글로벌 무역분쟁 ▲대의 정치 불안 ▲신흥국 불안 등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지난해 의견거절 상장사 25곳... 6곳 상폐

전년 동기보다 11개사 늘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가 32개사에 달했다. 이중 6곳은 이미 상장폐지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155개 상장법인의 2017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32개사로 전기보다 11개사가 늘었다. '의견거절'이 25개사, '한정'이 7개사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이 26개사(중복 계산)로 가장 많았고,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13개사, 회계기준 위반이 2개사였다.

이에 따라 적정의견 비율은 98.5%로 전기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99.5%), 코스닥

〈시장별 외부감사의견 현황〉

구분	2017 회계연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적정(비율)	754 (99.5)	1,228 (98.3)	141 (95.3)	2,123	98.5
비적정	4	21	7	32	1.5
한정	2	4	1	7	0.3
의견거절	2	17	6	25	1.2
합계	758	1,249	148	2,155	100.0

단위: 사·%·%p /자료=금융감독원

(98.3%), 코넥스(95.3%)의 순으로 적정의견 비율이 높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법인 25개사 중 6개사는 상장폐지됐으며, 나머지 19개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여부를 심사 중이다.

LH 도심지 내 산림형 공원 '그린 케어숲'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진주혁신도시 소재 LH 본사에서 산림청과 'LH 그린 케어숲'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 그린 케어숲'은 공사가 조성하는 생활권내 산림형 공원에 산림청이 보유한 다양한 숲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신개념 숲 사업이다. 도시민은 인근 숲에서 다양한 시설과 전문 프로그램으로 치유와 힐링, 숲놀이, 태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생활권 내 숲 자원을 활용한 다양

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용부담 없이 지속적, 주기적으로 치유와 힐링이 가능하다.

LH는 깊은 산악지역에만 조성·운영되던 다양한 숲 프로그램을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그 첫 성과물이 산림청과의 협업을 통한 '유아숲 체험원'이다.

지난해 3월 LH와 산림청 양기관 협업을 통해 조성한 행복도시 원수산, 전월산 내 '유아숲 체험원'은 도심지 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공간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연계한 숲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미세먼지 등 걱정 없이 숲에서 함께 마음껏 뛰어노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친숙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숲숲과 자연이 가진 치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리·환경적 자원 여건을 모두 반영한 도심권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LH는 맞춤형 그린케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운영해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윤경은 KB증권 사장(왼쪽에서 세번째), 이형일 WM총괄본부장(네번째), 김동기 IPS본부장(왼쪽에서 첫번째), 김유성 Wrap운용부장(두번째)이 'KBable Account' 잔고 1조원 돌파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증권

'KB 에이블 어카운트' 1년 만에 잔고 1조 돌파

낮은 가입금액·서비스 등 주요

KB증권은 지난해 7월 출시한 'KBable Account'가 잔고 1조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KBable Account'는 통합자산관리 플랫폼(UMA: Unified Managed Account)을 통해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외 주식은 물론 ELS, 펀드, 채권, ETF, 대안투자상품 등 다양한 투자자산을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임형 랩어카운트 서비스다.

KB증권은 상품 출시 후 불과 1년여 만에 잔고 1조원을 돌파한 배경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포트폴리오, 업계 최저 수준의 가입금액, 차별화된 운용 및 통합서비스 역량이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본사·지점운용형 중 본사운용형만으로도 잔고 1조원을 돌파해, 통합자산관리 플랫폼 기반의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중 본사운용형으로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잔고 수준을 기록했다.

/김문호 기자